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600만불 계약 체결

전북자치도 기업 4개사, 남아공 등 4개국과 수출계약 체결 수출 상담 희망기업 500개사 선제적 발굴 통한 노력 '결실'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대회 개막 첫날부터 600만 달러(약 81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22일 기업전시관에서 진행된 수출계약식 행사에서는 피에스비 바이오(주)를 비롯한 도내 4개 기업이 멕시코 등 4개국 4개 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계약식에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우재 대회장, 장대환 매경미디어 그룹 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고석원 중기유통센터 부사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이 참여해 제22차 한인비즈니스대회 수출계약의 물꼬를 튼 기업들의 성과를 축하하며 더 많은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에 수출 계약에 성공한 기업은 두피케어 삼푸를 생산하는 피에스비 바이오(주)와 교통시설물인 가드레일 제조기업 ㈜케이에스아이, 식품기업인

(㈜푸드웨어, 디자인 농부 등이다.

먼저 (주)케이에스아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업인 LIB Africa(Pty) Ltd.와 3년간 3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주)푸드웨어는 네덜란드 KAICO B.V.사와 3년간 100만달러, 피에스비 바이오(주)와 디자인농부 역시 멕시코 TAEYANG DE MEXICO SA DE CV사, 호주 KS Global Trading Pty. Ltd.사와 각각 3년간 100만 달러를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이 같은 계약성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외동포청이 협업하여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수출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 500개 사를 사전 발굴, 수출 상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다.

특히, 사전 발굴한 기업의 대표생산품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해 OKTA 회원, YBLN, 재외동포청 바이어 등에게 제공하고 선제적으로 도내 기업과 바이어 간 일대일 매칭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대회 기간 중 이뤄지는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마련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 전시회장 MOU 체결장에서 수출 계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회 종료 직후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출전략 상담회를 개최해, 국가와 바이어별 수출 전략 수립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기업들의 수출 계약 추진 현황을 월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 간 비즈니스 교류가 확대될길 바란다"며, "수출 계약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대일 수출 상담 기회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 수출계약식은 해외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들이 결실을 맺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2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1층에서 열린 '2024 전북여성 생애구술사 포럼'.

'2024 전북여성 생애구술사 포럼' 개최

'전북 지역 여성생애구술사 의미와 필요성' 주제로 진행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22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1층에서 '2024 전북여성 생애구술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포럼은 '전북 지역 여성생애구술사 의미와 필요성'을 주제로 진명숙 부교수(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가, 이어 백미록 연구위원(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이 '전북 지역 여성생애구술사 방향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전정희 원장(전북여성가족재단)이 좌장을 맡아 주경미 연구위원(충북여성재단 정책연구팀), 함한희 원장(무형문화연구원), 이경아 연구교수(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전희진 책임연구위원(전북연구원 인구·정책팀)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전북지역 여성생애구술사 현황 △전북 여성들의 생애를 구술사 형식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의 필요성 △지역 여성생애구술사의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 지역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 내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여성가족부 지정 책임연구위원(전북연구원 인구·정책팀)의 토론이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화제'

도, 고향사랑기부 홍보관 운영... 도내 농·축·수산물 등 답례품 전시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답례품 수령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에게 전북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을 꾸민다.

고향사랑기부 홍보관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

예품, 관광·체험 관련 답례품들이 전시되며, 방문객들이 답례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시식 및 시음 행사도 진행해 국내·외 경제인들에게 전북의 품질 좋은 답례품의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기부자들에게는 전북자치도의 인기 답례품인 쌀과 쌀 가공품을 전북농협

과 협력하여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부의 가치를 나누고 참여를 독려하는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입국한 재외동포들은 국내 거소 신고자에 한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등록 거주지 외 지역의 고향사랑기부

제에 참여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재외동포를 통한 전북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혜수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은 재외동포와 국내 경제인들에게 전북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돕는 앱 나왔다

전북자치도-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 국적+' 앱 개발 전국 모든 외국인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무료 배포 '눈길'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지난 20일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의 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면접용 모바일 교재 '전북 국적+'를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국적+'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 국적취득 시 최종 구술시험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북자치도에서 만든 모바일 앱이다. 이 앱은 핸드폰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전북 결혼이민자는 물론 전국의 외국인 주민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앱은 간이귀화를 하는 결혼이민자 용과 외국인 용으로 총 563문제로 구성되었으며 법무부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기초로 제작됐다.

도와 진흥원은 앱 개발을 위해 4월부터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교재편찬을 위한 문제구성 및 난이도 조절, 교차 검증 등을 했고, 편찬된 교재를 앱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능과 디자인 보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도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국적취득 지원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을 320명 운영하고 있으며, 국적취득 시 국적취득 비용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북 국적+'는 지난 20일 전북의 외국인 주민이 모이는 'MY전북 세 계인축제'에서 첫 선을 보였다. 앱을 사용해 본 외국인들은 구술면접이 부담스러웠는데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 국적+'를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외국인 주민의 국적취득을 지원하고 전북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이 전북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가을철 불법어업 집중 단속 실시... 31일까지

무허가어선·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 위반 행위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가을철 성 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업 질서 확립과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3개 시군이 협력해 이루어지고 있다.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어업지도선 3척, 그리고 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제한 위반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다른 지역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 조업을 하는 도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전북 어업인들의 소득 보호와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하여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어업허가 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계획이다.

서재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